



지난 25일 고창농악보존회의 한옥자원활용 야간상설공연 '광대, 1894'가 첫 선을 보인 가운데 관객들로부터 열띤 호응을 이끌어 냈다.

동학농민혁명, 고창농악의 신명으로

고창농악보존회 한옥자원활용 야간상설공연 '광대, 1894' 관객 열광

예향 고창군의 대표 무형문화유산인 고창농악과 동학농민혁명의 역사가 만났다.

지난 25일 (사)고창농악보존회의 2019 한옥자원활용 야간상설공연 '광대, 1894'가 첫 선을 보인 가운데 관객들로부터 열띤 호응을 이끌어 냈다.

'광대, 1894'는 동학농민혁명 125주년을 맞아 국가기념일 제정을 기념하며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1894년 갑오년 동학농민혁명 당시 고창에 살았던 흥남관이라는 실존인물과, 그를 중심으로 조직된 재인관대부대를 모티브로 삼아 풀인도를 뿔었다. 여기에 고창농악을 비롯한 다양한 지역의 농

악과 남도 씻김굿, 죽방울, 버나놀이, 기놀이 등과 라이브로 진행되는 기악연주가 더해져 기존보다 농악의 풍성함을 더해 눈과 귀를 만족시켰다.

'광대, 1894' 남기성 연출가는 "이번 작품에서는 농악을 통해 눈물과 웃음, 감동 등 다양한 감성의 신명을 표현하려고 했다"며 "동학농민혁명 당시 실제 고창의 역사를 다루는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만든 공연이다. 다양한 연희와 볼거리로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으니 많은 분들이 오셔서 고창농악의 신명을 마음껏 즐겼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농악전용극장에는 다양한 전통놀이체험과, 먹거리 주막이 준비되어 있어 다채롭게

공연을 즐길 수 있다. 또한 고창 지역 상생 프로젝트 '먹돌자 프로젝트'를 진행해 공연을 관람한 관객들에게 고창내의 먹거리, 즐길 거리 이용시 다양한 할인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라북도,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고창군이 주최하고, (사)고창농악보존회가 주관한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하나금융그룹이 후원하는 이번 상설공연의 관람료는 1만원이며 티켓은 당일 현장예매와 인터파크티켓에서 예매 가능하다.

특히, 인터파크티켓 온라인 예매시 60% 할인이 적용되며 고창군민의 경우 50% 할인이 적용된다. 그 외에 다양한 티켓 할인 혜택이 준비되었다. 자세한 사항은 인터파크티켓과 고창농악홈페이지(gochanggut.org)를 참조하면 된다. /고창=김영식기자

문화로 숙성, 예술로 성숙!

임실문화원, 내일 '치즈' 주제로 한 문화 행사 개최

임실문화원(원장 최성미)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한 '2019 지역특화프로그램 문화가 있는 날'에 선정되어 5월부터 10월까지 총 5회에 걸쳐 매주 마지막 주 수요일에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가진다.

'치즈! 문화로 숙성, 예술로 성숙! 雲水 좋~다!'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문화가 있는 날은 임실문화원, 상성마을 일대에서 문화숙성 콘셉트로 5월 치즈, 6월 마늘, 8월 농촌, 9월 역사, 10월 자연을 테마로 설정해 공연, 전시, 인문학 강연, 다큐영화제, 상성마을투어, 체험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임실의 대표적인 상품인 치즈의 이야기를 문화·예술적 접근을 통해 지역민이 향유하는 문화가 있는 날을 만들어 지속적인 지역문화콘텐츠 개발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심민 군수는 "이번 문화가 있는 날 행사



를 계기로 군민들의 문화감증을 해소하고 임실의 가치를 높이며 지역민이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5월 문화가 있는 날 행사는 29일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임실문화원 일대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2019 제1회 임실예술제'가 지난 25일 임실군민체육관에서 한국예총 임실지회 회원과 군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려한 문화예술 향연을 펼쳤다.

목정문화재단과 함께하는 '전북고교생백일장' 성료

최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23회 전북고교생백일장'에서 문문부 장원에 김신정(전주한일고), 산문부 장원에 정유진(이일여고) 학생이 선정됐다. 상금은 각 100만원.

전북고교생백일장은 전북지역 청소년 중 문화·예술 분야 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마련된 대회로, 총 상금이 단체상을 포함해 1,000여 만원에 이르는 규모 있는 대회다.

(재)목정문화재단(대표이사 김홍식)이 주최, (사)한국문인협회 전북지회(회장 류희옥)가 주관했고 전북교육청이 후원했다.

본 대회에는 도내 25개교 350여 명이 참여했으며, 백일장 글제는 '원(圓)', '효(孝)'로 했다. 100만 원 상당의 도서상품권이 주어지는 우수학교상은 전주한일고와 호남제일고가 차지했다. /장은성 기자



최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제23회 전북고교생백일장'이 열렸다.

제1회 임실예술제, 화려한 문화예술 향연 펼쳐

임실군이 후원하고 한국예총 임실지회(지회장 김대건)가 주최한 '2019 제1회 임실예술제'가 지난 25일 임실군민체육관에서 한국예총 임실지회 회원과 군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려한 문화예술 향연을 펼쳤다.

이날 행사에는 심민 임실군수를 비롯한 김왕중 군의회부의장, 이용호 국회의원, 한원수 도의회부의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올해 처음 열린 예술제는 한국예총 임실지회 소속 4개 분과(문인, 국악, 음악, 미술) 회원들이 그동안 갖고 있던 수준 높은 작품을 선보였다. 또한 음악공연을 비롯하여 평소 접하기 어려운 도자기 만들기 체험 등 군민들의 오감을 충족하는 다양한 행사 프로그램을 진행해 따뜻한 봄의 낭만과 문화예술의 정취를 동시

에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한국예총 임실지회 김대건 지회장은 "이번 행사는 임실군민의 흥과 승리가 깃든 문화예술의 도약을 위한 임실예총의 꿈이자 또 하나의 시작이며, 앞으로도 군민들과 함께 도약을 꿈꾸는 임실예총이 되겠다"고 전했다.

심민 군수는 "군민들이 지역 예술인과 함께 문화예술에 대해 서로 소통하며 공감대를 확산하는 새로운 지리가 마련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임실예총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군민들의 관심과 사랑 속에 더욱 발전하여 품격있는 문화예술도시 임실로 성장하는데 큰 힘이 되어 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임실=진홍영기자



2019 대한민국 대표축제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www.firefly.or.kr

2년 연속 문화관광 대표축제 선정

무주 반딧불축제

Muju Firefly Festival

2019. 8.31 토 ~ 9.8 일



무주군